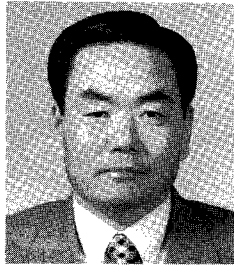


경쟁시대의 경영 방법을 배우자.



천 강 균
애 농 원 대 표
본 회 이 사

최 근에는 산란계 산업의 양적팽창은 상당한 수준까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의 향상은 그에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되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시설의 확장과 현대화를 위하여 달려 왔으나 가장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부분의 개선을 빠트리고 수수 확장에만

급급하여 정부의 경쟁력 제고 산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저리(低利)자금으로 빚을 얻어 무모한 숫자 놀음만 해온 엄연한 사실들을 감히 아나라고 큰 소리 쳐 대답할 사람들이 별로 없을 줄로 안다.

더욱이 딱한 것은 방만한 자금의 상환기에 접어들면서 IMF라는 초특급 허리케인(미국으로부터 불어 왔으니 이렇게 표현함)의 내습(來襲)으로 인하여 거대한 나무들이 뿌리채 뽑혀지고 있음을 많이 본다. 이거야 정말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살펴보면 적절한 경영 기법의 부족과 생산성이 함께 발전하지 못한 언발란스로 말미암아 튼튼히 뻗어나지 못한 뿌리 때문에 단 한번의 회오리에도 휘청거리고 부러지며 뿌리채 뽑혀나가는 연약한 현실들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보면 대부분의 농장들이 몸집만 큰 외래 수종(樹種)인데다 토질검사는 물론 사계절이 너무나도 뚜렷한 한국의 기후조건에 적응성 검토없이 유행병처럼 너나 없이 마구잡이로 여기저기 심어놓고 보니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자라는 듯 싶더니 이게 웬일인지 세월이 갈수록-모진 더위라던가 잦은 번개로 인한 정전이라던가-풍토의 이상 야릇한 한국적 심술에 적응을 못하고 비실비실 명맥만 유지하다보니 마침내는 병들고 마(摩)가 끼어서인지 건강을 되찾지를 못하는 것 같다.

실제로 체험하였거나 당하고 있는 농장들에게는 조금은 미안함이 드는 회화적 표현이었지만, 우리 양계인들은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 업계는 너무 영성하고 주먹구구식이며 독불장군에 유아독존식이다 보니 체계적이지

못하고 뒤죽박죽 앞뒤가 맞지 않고 그저 굴러가는 대로 굴러가면 된다는 식의 진취적이지 못하여 퇴보적인 현상이 도처에 배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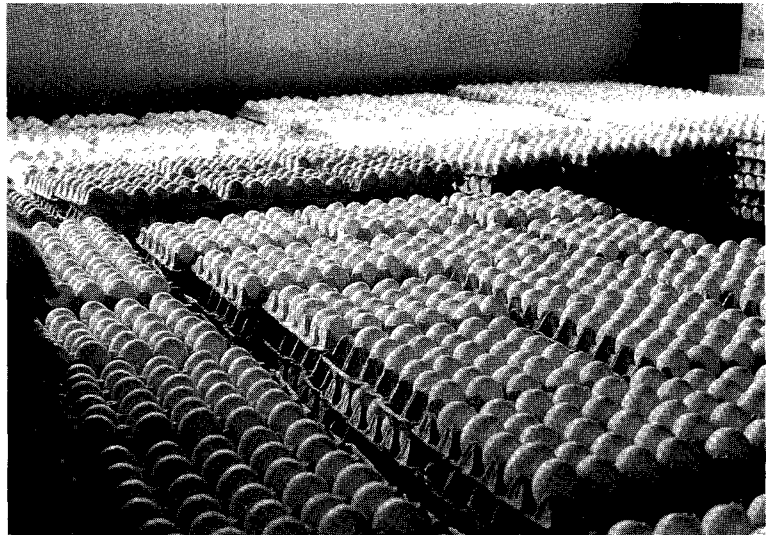
채란업의 생산성 저하의 실태를 정확한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오늘날 이렇게된 원인들을 나름대로 꼬집어 낼 수 있다.

먼저 시설자체의 기능은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주된 요인은 이름하여 물대통령 시절 급변하는 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날마다 뛰어 올라가는 인건비 탓에 고밀도 사육이 유행하면서 시작됐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은 기(氣)죽기 싫어서 따라가다보니 첫 번째 부딪치는 문제가 우리나라의 전기 사정이 선진국—그런 기계를 수출하는 나라—들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잦은 정전이라든가 전압의 불규칙 등으로 창없는 감옥(무창계사)의 수난은 시작된다.

그러더니 근래에는 한술 더 떠서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되었다. 그것들도 대부분 전기누전과 같은 등등의 전기 사고들? 다음은 생각지도 않던 하찮은 질병이 국토를 쓸고간다.

이거야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말을 꺼내기도 싫은 아주 원시적 질병 때문에 혼쭐나고 있지 않은가? 이름하여 「가금티푸스」라는 병이 판을 치고 있다.



요즘엔 뉴캐슬이나 계두, ILT, IB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질병이 되었고 풍토병이 되다시피 유명해져 있지 않은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이 병은 선진국엔 없어진지 오래된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의 얘기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에는 있다.

방역기관들의 나태스러움과 정부의 무관심 그리고 양계업자들의 유일한 권익단체인 협회의 안일한 대처방식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나는 과거에도 몇 번인가 행정당국의 방역 시스템을 지적하였고 종계 관리의 철저를 기하도록 강조한 적이 있다. 그리고 협회는 방어력을 갖출 수 있도록 힘을 키우고 단결해서 정연한 이론과 방법을 정부에 제시하여야 한다. 지금은 협회 내부의 이해 갈등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더욱 아쉬움이 있다.

종계업계의 대응과 채란업계의 대응이 그렇다. 대충대충 넘어가는 추백리 검정이 그렇고 종계로 쓸 수 없는 노계를 강제환우하여 실용계를 뽑아내는 우리나라만이 할 수 있는 여유

이 문제는 양계협회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되고 해결해야 된다고 본다. 백날을 너 따로 나 따로 놀아 보아야 해결되지 않는다. 깊이 있는 토의를 하고 협약을 맺고 강력한 제제수단을 정부에 강구하여야 한다. 이것을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채란업계의 종말이 올거란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살모넬라 계란? 살모넬라 닭고기」 먹고 어떻게 됐다는 뉴스 한 번 나간다고 상상해 보았는가!

그때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금은 각 농장에서 병 다스리기만 신경들 쓰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신경써야 할 것은 이제는 소비자를 무서워하는 양계인이 되어야 살아남고 다같이 사는 길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며 양계인의 수익증대를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늦기전에 사고(思考)의 획기적인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앞으로는 내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양계업의 대열에서 도태되기 보다는 외적인 압력에 의하여 크나큰 태풍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서 청결한 환경에서 생산한 양계산물을 자신있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 사람의 철저히 못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수 많은 전체 양계인이 도매급으로 넘어가지 않으려면 식품의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싶다.

항생제의 남용으로 인한 축산물의 항생물질 잔류 문제가 제거되지 않도록 세심한 사양관리를 함은 물론이며 특히 계란에 묻은 오물을 대

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대로 마구 깨끗한 계란과 섞어서 출하하는 자세는 이제부터는 단호하게 시정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어 상인들에게 팔았을 때는 말이 없었는데 왜 문제를 제기하느냐고 탓 할지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오란은 별도로 구분해서 세척하거나 별도로 표시하여 출하함으로써 상품의 품질향상은 말할 것도 없고 생산자의 이미지를 높임으로써 상품의 차등화를 통하여 남보다 좀더 가격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점이 바로 경쟁시대의 경영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경영의 합리화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경영의 합리화란 경비를 절감하고 수익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풀이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채란업의 경영합리화를 기할 수 있을까?

방만한 시설투자비의 이자 및 감가상각비 그리고 원금상환의 부담, 값비싼 사료비, 닭의 능력저하로 인한 생산성 감퇴, 각종 질병이나 재난 사고에 의한 손실, 자기능력 이상의 욕심으로 인한 뒷감당 못해서 당하는 허세 등 이러한 것들이 농장경영을 압박하고 도산하게 만드는 원인들 중의 하나다. 여기에 하나 더 지적하자면 정확한 정보나 통계를 몰라서 적절히 대응치 못하는 입식(입추) 행태는 각자 경영자들이 세심히 분석하고 판단하여서 분수에 맞게 합리화 하여야 한다.

농장경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하나 더 추가한다면 돈버는 양계를 확고한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돈이 벌릴 때 무모한 확장은 자제하고 어려워질때도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는 슬기로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이다.

이제부터 우리 양계인들이 눈을 크게 뜨고 살펴야 할 농장경영의 요점은 생산물의 판매 즉, 장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자신이 생산한 상품의 품질에 자신이 있어야 하고 판매가격을 확실하게 받을 줄 알아야 한다.

내 물건을 장사의 손에 넘겨주고 값은 주는 대로 받는 형태의 농장경영의 자율적 경영능력의 소유자라 할 수 없다. 반드시 즉석에서 계산서를 발부하고 주도적으로 판매하는 경영기법을 배워야 한다. 남들은 다들 잘 하는데 왜 나만은 후장기라는 뒤쳐지는 판매를 하여야 할까?

스스로 분석해보고 반성하며 자신있게 혁신할 줄 아는 사업가가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판매제도에 자신이 없으면 양계를 그만 두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계란 집하장에 넘으로써 생산자의 단결을 도모하고 유통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업계의 권익 옹호에 나서야 할 것이다.

금년들어 계란유통업계의 등을 치먹었던 계란 장사들은 하나둘씩 몰락해 가고 유통의 정도를 걸어가려고 하는 상인들이 늘어나고 있음은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때를 맞추어 우리 양계인들도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조속한 시일에 건전한 유통의 새로운 길이 닦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양계협회나 또는 양계조합으로부터 정보를 얻고 협조요청을 하여 계통출하를 함으로써 과감하게 후장기의 굴레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경영개선의 최대의 효과는 판매방식에서 찾자고 주장하고 싶다.

경영합리화에 관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적절한 규모의 시설과 사육수수 유지-분수에 넘치지 않게 규모를 가져야 한다.

2)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어떠한 호조건에서도 전염병을 막지 못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질병을 막지 못하면 만사를 망친다는 철칙을 명심해야 한다.

3) 부채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예를 들어 사료의 외상 구입은 선수금 거래보다 연리 48%의 고리채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계산할 줄 알아야 한다. 계란의 수익률은 과연 몇 %나 될까?

4) 품종선택의 신중을 기할 것-백색계는 체구가 작아서 사료의 소비량이 적고 가금티푸스 질병에 강하다는 시험 결과도 있다. 그리고 흰알의 소비가 증가 추세에 있다.

5) 계란 판매 방식의 개선-반드시 즉석에서 계산하고 가급적 현금거래를 하여야 부채의 경감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협회나 조합 등을 통한 유통 정보망을 적극 활용하자.

6) 생산물의 상품화를 남보다 뛰게 경쟁력을 갖추자-지금의 계란유통 패턴이 신선도와 청결 정도에 따라서 구매력이 월등히 달라지고 결국은 취득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오물이 묻었거나 파란 정도가 미미하다고 해서 아무런 탈이 없이 팔리던 시절은 머지않아서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외에도 많은 부분들의 경영개선에 관한 합리화 방안은 농장경영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이며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려면 남다른 연구와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양계**